

「자원순환 사회의 새바람」 친환경 시멘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2000℃ 고온의 제조과정 특성을 갖고 있는
시멘트산업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Cement & Nature
시멘트와 자연이...
하나되다



성신사람들

소통의

소통은
협력을 만드는
기본 도구이다.
정확할수록, 배려할수록
단단해진다.

데시벨



THEME STORY

우리들의 사전 소통의 데시벨	04
스마트 기호 소통이 바뀌려면 질문이 변해야 한다	06
생각하는 그라운드 자기 암시와 팀워크를 일궈내는 양궁의 소통	10
성신의 바로미터 소통의 기본을 점검하다 성신인의 듣기·말하기·쓰기	14

성신사람들

발행일 2021년 10월 28일
 발행인 김태현
 발행처 성신양회 주식회사
 www.sungshincement.co.kr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7층
 Tel. 02-735-8801/ 02-3782-7000
 Fax. 02-3782-7049
 편집위원장 김상규
 편집위원 신기준, 배성표, 진유진, 박만수, 정홍주
 진행 오세원, 전미진
 기획·편집·디자인 (주)대통기획
 Tel. 02-2269-3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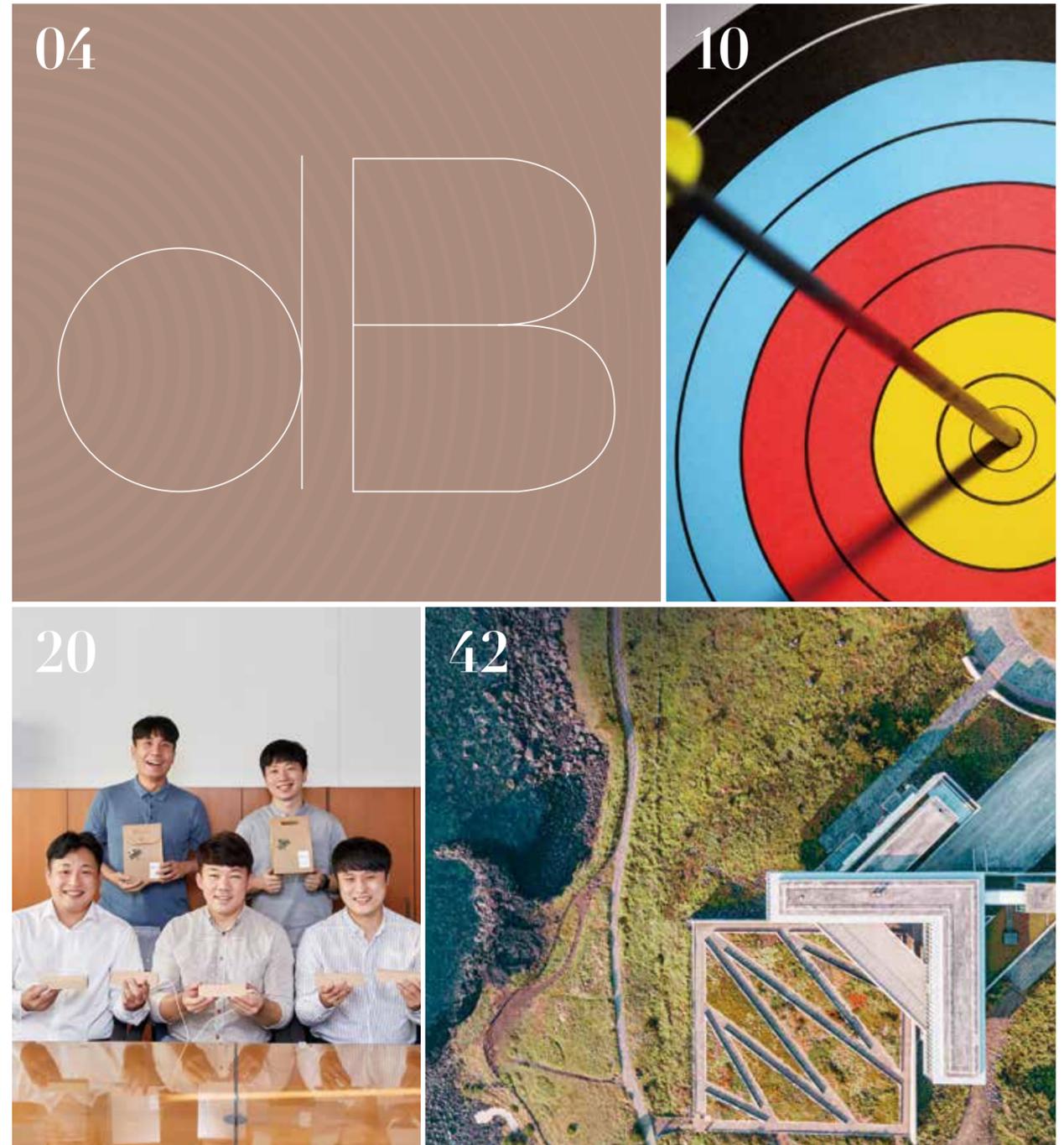
ON

HOT TREND 평일은 김대리, 주말은 유튜버? 직장인 겸업 관련 팩트체크	18
힐링 클래스 반짝이는 하루, 빛나는 활약을 응원해요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20
파파라치 콘테스트 교양 가득 감성 충만! 성신인의 독서 라이프 대공개	24
GIFT FOR U 1일 1칭찬 어때요?	28

OFF

간극의 완성 '최애' 유튜브 채널로 알아보는 취향 대결!	32
新 놀이백서 우리 때 싸이월드가 있었다면, 요즘 애들은 메타버스에서 논대	36
성신 로드뷰 가을빛을 가득 머금은 내륙 여행 @단양	38
ART WITH 시멘트 콘크리트, 자연을 담아내는 캔버스가 되다	42
건강 시그널 쌀쌀해진 날씨, 영양제는 잘 챙기고 있나요?	44
FAMILY NEWS 사우 경조사	45
SUNGSHIN NEWS	4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들은 각 필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dB

; 소통의 데시벨

소통의 데시벨

소통 [명사]

1. 막히지 않고 잘 통함.
2.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데시벨 [명사]

1. 어떤 양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기호는 dB
2.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음원의 세기를 표준음 세기 비율의 상용로그의 10배로 나타낸다.

“소통의 데시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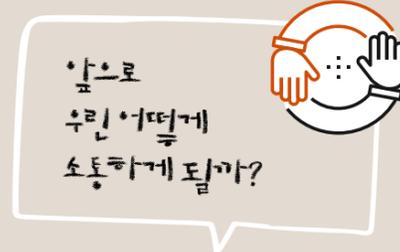
소통의 원활함을 나타내는 정도

소통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도구이기도 하죠. 우리 매 순간 누군가에게 나의 의사와 상태를 전달하고, 반응을 확인하며 서로 이해, 협력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옆자리 동료와 나누는 사소한 대화에도 이러한 과정이 숨어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나 협상에서라면 말 한마디, 반응 하나에도 무겁고 큰 의미가 생성되죠. 나의 말에 담긴 메시지와 의도가 상대에게 100% 전달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소통의 데시벨은 높아집니다. 정보의 양이나 목소리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고 정확하게 전하는 이의 목소리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겠다는 열린 태도가 소통의 데시벨을 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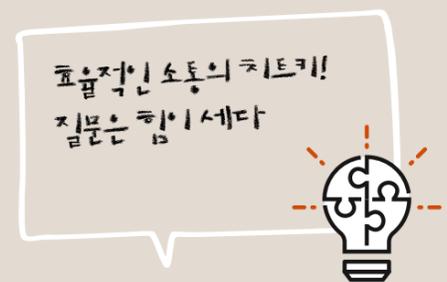
소통이 바뀌려면 질문이 변해야 한다

길어지는 회의를 결론으로 이끄는 말, 협상에서 대화를 원하는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말은 모두 물음표, 즉 질문으로 끝난다. 효율적인 소통, 예의를 갖추는 소통도 모두 질문에 달렸다. 소통의 데시벨을 높여주는 질문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팬데믹은 그 변화를 매우 빠른 속도로 앞당겼다. 전통적인 대면 소통이 단절되자 한편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소통이 활성화됐다. 불편함을 무릅쓰다 보니 어느새 적응도 됐다. 업무, 교육 등 비대면 기술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게 된 지금의 상황에서 궁금증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한번 변화한 소통 방식은 이전의 방식을 완전히 대체할까?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제 조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두 가지 종류 즉 대면이 필요한 소통과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됐다. 팬데믹으로 일상화된 디지털 소통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소통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바뀌더라도 카메라 너머의 소통이 얼굴을 맞대는 시간보다 낫다고 볼 순 없다. 그래서 우리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소통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할 것이다.



좋은 질문은 좋은 소통, 나아가 좋은 결과를 만든다. 나를 중심에 두기보다 상대에게 귀 기울이는 소통, 내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질문하고 확인하는 적극적인 소통은 도래한 디지털 소통의 세상에서 더욱 긴요해질 것이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게 생겨나 질문을 하게 된다. 주고받는 질문이 어떠한에 따라 대화와 관계의 질이 바뀌게 된다. 좋은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협조를 이끌어낸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수월하게 얻을 수 있게 도우며, 내가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낸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소통을 위해 내가 자주 하는 '질문'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

진심을 전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좋은 질문'이란?



① 적절한 타이밍에 던지는 질문

“질문 하나만 드리도 될까요?”

들어서 좋은 내용이라도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쉬운 소통으로 이어지기 쉽다. 상대의 상황에 따라 다른 답변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바쁘게 일하는 동료나 상사에게 질문을 하게 될 때, 적당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을 때 적절하거나 그렇지 않은 질문을 구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받는다면, 묻는 나도, 답하는 상대도 만족스럽지 않은 소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질문 하나만 드리도 될까요?”하며 먼저 양해를 구해볼까? 상대는 예상 밖의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② 상대를 중심에 둔 배려 있는 질문

“프로젝트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걸로 알아요. 어려운 점을 듣고 싶어요.”

대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있을 때 질문의 수준이 올라간다. 소통으로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 단지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질문은 피하자.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상대를 중심에 둔 질문을 통해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먼저 전해보자. 상대로 하여금 솔직하고 열린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고,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점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③ 소통을 촉진하고, 생각을 확장하는 '열린' 질문

“결과물에 우리의 의도를 반영하려면 무엇을 보강해야 할까요?”

열린 질문은 대화 상대가 자신의 상황과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질문이다. 열린 질문의 목적은 어떠한 사안에 대한 넓고도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상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상대가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답정네(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식'의 질문이다. 자신의 입장을 은연중에 내포하거나, 결론을 정해놓는 방식은 생각과 의견을 확장하는 '열린 질문'이 될 수 없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리더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로 주의해야 한다.



④ 그리고 잊지 말 것! 리액션

“잘 됐네요~ 그래서 다음 계획은 뭐예요?”

질문을 한 사람은 나다. 이어지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적절한 리액션도 잊지 말자. 우리는 소통할 때 표정, 몸짓, 자세 등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3초가량의 '아이 콘택트'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몸짓 언어는 '당신 말을 잘 듣고 있어요'라는 뜻이다. 공감의 표현을 눈으로 보여주고, 이야기를 확장하는 짧은 질문도 던져보자. 대화의 상황에선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도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모두의 역량을 UP하는 질문 Office 실습편

(참고: <말그릇> 김윤나 저)

보고할 때 : 선배가 후배에게 질문하기

질문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Q. 보고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목적
Q.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현황 분석
Q. 보고서의 결과물을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가능성 발견
Q. 보고 이후 서로(선배와 후배)가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사후 진행

회의할 때 :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하기

질문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Q. 회의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목적
Q. 좀 더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방법
Q.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확인
Q. 우리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어떻게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후 진행

업무할 때 : 업무 중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질문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Q.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배분했나요?	우선순위
Q.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나요?	가치
Q. 지금 하는 업무를 최상의 결과물로 만들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탁월함
Q.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성장



Archery

자기 암시와 팀워크를 일궈내는

양궁의 소통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다. 공정한 경쟁과 실력 있는 인재 발탁 등이 승리 요인으로 꼽히지만, '소통의 힘'도 빼놓을 수 없다. 내면을 향한 자기 암시와 팀원들의 자신감을 북돋는 상호 소통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점이다. 고요하고도 치열한 소통의 힘에 주목해보자.



목표한 바에 도달하기 위한 자신과의 소통

양궁은 화살을 쏘아서 70m 거리에 있는 과녁의 중심에 최대한 가깝게 맞는 종목이다. 집중력이 살짝만 흐트러져도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신력이 매우 중요하다. '쫄지 말고 대충 쏘는' 한국 하계올림픽 최초의 3관왕 기록을 세운 안산 선수가 결승전 숏오프* 당시 속으로 되뇌었다는 말이다. 보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그런데 목표 달성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강인한 마음을 풀고 '대충'이라니,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장자>의 외편에 "사람들이 활쏘기 내기를 했다. 질그릇을 걸고 내기를 했더니 과녁을 제대로 맞혔다. 다음으로 값이 더 나가는 띠쇠를 걸었더니 명중률이 좀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황금을 걸었더니 아예 과녁을 빗나갔다."라는 일화가 나온다. 욕심과 집념은 자신도 모르는 새 힘을 주게 만들고, 힘을 주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힘을 빼야 할 텐데, 이는 마음의 힘을 의미할 터다. 안산 선수는 '대충 쏘자'는 마음가짐으로 화살을 정확히 10점 과녁에 꽂히도록 만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최대 분당 심박수는 118bpm(분당 118회)으로 평상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자기 암시가 승리를 가른 셈이다.

*숏오프 : 승부를 가리지 못한 동점의 상황에서 선수들이 화살을 발씩 쏘게 되며, 과녁 중심에 가까운 선수가 승리하게 되는 것

오피스 활용 Tip

부담감 내려놓기

새로운 업무를 맡거나 승진을 하게 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을 느낀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어떤 일이든 실수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오히려 무리하거나 긴장하면, 잘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게 된다. '못해도 괜찮아', '못하면 다음에 잘하면 돼' 등의 자기 암시로 마음의 짐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시각화

직장 생활엔 늘 답답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찾아온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화를 터뜨리거나 꼭 참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 거 아니야', '나는 잘 할 수 있어' 등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바탕으로 순조로운 진행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처음 해보는 업무, 까다로운 문제 해결을 마중했다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과정을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상상해보는 것이다. 실제로 양궁 선수들도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을 이미지화하고 화살을 쏘아 좋은 결과를 낸다.



**신구의 앙상블을 만드는
팀원과의 소통**

양궁의 세부 종목은 5개로, 개인전(남자/여자), 단체전(남자/여자/혼성)으로 나뉜다. 그 중 단체전은 3명의 선수로 팀이 구성되며, 팀워크가 승패를 좌우한다. 경기는 세트제로 진행되며, 각 팀의 선수들이 번갈아 발씩 화살을 쏘고, 그 총점으로 승부가 정해진다. 세트제는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체력 소모와 정신적인 부담감이 상당하다.

목표와 성과를 공유하는 단체전인 만큼 팀원의 실책을 탓하지 않고 보완해 주는 미덕이 필요하다. 팀원의 실수로 형성된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준다는 신뢰의 마음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양궁은 한 세트마다 나오는 점수가 명확하다 보니 경력과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한 경쟁 시스템이 작동한다. 팀 내에서도 상대보다 앞서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이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특히 2020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단체전의 팀워크는 빛났다. 이번 팀은 10대 김제덕, 20대 김우진, 40대 오진혁 선수로 신구의 앙상블이 돋보였다. 오진혁 선수와 김제덕 선수의 나이 차이는 무려 23살이었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 이들은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똘똘했다. 여자 단체전의 팀워크도 끈끈했다. 첫 번째로 출전한 안산 선수가 두 번째로 출전하는 강채영 선수에게 자신이 먼저 경험한 풍향과 조준점 등을 알려주며 도움을 주었다.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쌓아가는 성취는 여자 단체전 9연패, 남자 단체전 2연패는 물론, 처음 도입된 혼성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얻었다.

**오피스 활용
Tip**

질책 대신 긍정적인 조언을!
조직에서는 팀원끼리 업무의 목적과 방향을 함께 정하고, 성취를 함께 공유한다. 만약 팀원이 실수했을 때 '왜 그랬어?', '너 때문이야' 등의 질책이 불가피할 때도 있다. 하지만 질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크지 않다. '책임을 함께 지고 싶지 않다는 의도를 전달할 뿐이다. 부여받은 일을 '함께'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실수에 대한 비난보다는 발전적인 조언을 더 많이 나누자.

건강한 경쟁 환경 조성
상하관계와 책임의 범위가 명백히 존재하는 조직에서는 동등한 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다. 효율적인 업무 지시와 실행을 위한 한계를 인정하되, 아이디어를 경주해야 하는 회의, 업무 진척과 문제 상황을 공유하는 보고 등을 위한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의 의견에 동등한 수준의 무게를 부여하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은 조직 내에서도 건강한 경쟁을 부추기고, 결국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연다.

TOKYO 2020



사진제공 :
올림픽
결정적순간



**오피스 활용
Tip**

관심이 필요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할 것
리더라면 업무 진척과 관련된 중간 보고나 점검 시 팀원들의 업무 분야와 업무 방식을 고려해 소통하자. 관심과 응원이 의지를 북돋게 하는 사람과 업무가 있는 반면, 세심한 관심이 부담감으로 이어지는 사람과 업무도 있는 법이다. 물론 굳은 신뢰가 느껴지는 격려만큼 힘이 되는 것도 없으니, 칭찬과 격려는 아끼지 말자.

**경기 능력을 좌우하는
관중과의 소통**

코로나19로 2020 도쿄올림픽은 올림픽 사상 최초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은 관중의 응원과 환호로 경기 능력이 높아진다. 혼자 있을 때에 비해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응원의 말을 들었을 때 성과가 더 좋아진다는 '사회적 촉진'이라는 심리적 이론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축구나 야구 등의 구기종목에서 '홈 경기'의 승률이 높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난 도쿄올림픽은 무관중 경기 진행이 선수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 실질적인 과학 실험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양궁의 경우는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들과 달리 관중과의 소통, 사회적 촉진 효과가 역으로 작동하는 종목이다. 공사들에게 상대편보다도 관중이 더 큰 '적'이기 때문이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활시위를 당길 때마다 관중이 괴성 또는 아우 소리로 집중을 방해하는 시도를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소통은 때로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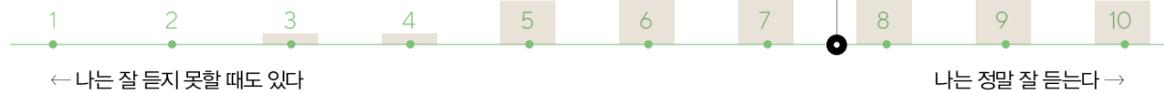


소통의 기본을 점검하다 성신인의 듣기·말하기·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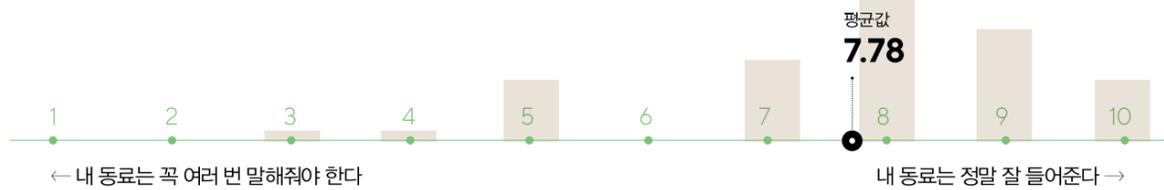
생각을 맞대는 소통, 우린 잘 하고 있을까? 여느 때보다 소통의 기회는 많아졌고, 방법도 다양해졌다. 이럴 때일수록 듣기, 말하기, 쓰기의 기본 스킬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총 응답자 수 : 56명)

듣기

Q1. 나는 얼마나 잘 듣는 편?
셀프 체크!



Q2. 나와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내 동료(1인)는 잘 듣는 편일까?



Q3. 회의할 때
이게 정말 신경 쓰인다!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

- 54% 준비가 덜 된 듯한 요점 없는 발언
- 23% 나는 뭐라고 말하지? 머릿속으로 내 의견만 정리하기
- 18% 스마트폰으로 딴짓하는 동료들!
- 5% 음... 어... 은근 신경 쓰이는 추임새



말하기

Q4. 회의, 스몰 토크, 미팅 등 다양한 상황에서 말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 61%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의견을 내라고 할 때
- 19% 상대와 다른 의견/거절/반려 의사를 제시해야 할 때
- 16% 내 이해를 넘어서는 난이도의 이야기를 할 때
- 4% 의례적인 칭찬이나 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

Q5. 건강하게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내는
나만의 멘트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대화의 요점을 요약하고 대화 후 각자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요즘 애는 잘 크고 있죠?” 상대의 관심사를 지켜해 일상 토크!

“점점 나아져요. 알려드린 보람이 있네요” 칭찬을 곁들이며 그 사람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등 공감 먼저 표하고 의견 전하기

“죄송한데...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이거 제가 꼭 해야 하는 거라서...” 등등 살짝 비굴한 태도가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좋은 생각입니다”, “훌륭합니다” 등 좋은 의견엔 긍정적 피드백 팡팡!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잘못된 건 인정), “옆에 항상 누가 있었는지 기억해 줘요” (잘된 점은 어필하자!)



쓰기

Q6. 이런 업무상 소통, 이런 메시지
(메신저, 이메일)는 정말 싫다!

- 57% 읽었으나 답 없는(피드백이 한참 걸리는) 메시지
- 39% 구구절절 해독에 10분 걸리는 이메일
- 2% 신조어와 줄임말이 가득한 메시지
- 2% 인사 없이 본문으로 직행하는 메시지



결과 총평

프로답고 사려깊은 성신인의
커뮤니케이션에 박수를!

이번 앙케이트의 답변들에는 우리가 소통할 때 추구해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한 힌트가 가득하다. 업무와 일상에서 적용해보면 어떨까? 돋보였던 건 사우들이 자신에게 부여한 듣기 점수와 동료에게 부여한 듣기 점수였다. 차이가 크진 않으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보다 동료의 경청에 대한 평가를 높게 내렸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상대가 잘 들어주었다고 생각할 때 우린 상대를 믿고 협력할 수 있다. 주관식 답변에서는 성신인들의 사려깊은 소통 스킬이 엿보였다. 효율적인 의견 교환도 중요하지만,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가 '말'에 배어있었다.



check list

나의 대화유형 TEST
대화 방식의 장단점 파악하기

참고: 강미정, <말하기의 디테일>(2019)

STEP1

아래의 분류된
단어들 중 내게 해당하는
모든 단어에 표시해보자.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input type="checkbox"/> 당당한	<input type="checkbox"/> 공감능력	<input type="checkbox"/> 조용한	<input type="checkbox"/> 원칙적
<input type="checkbox"/> 솔직한	<input type="checkbox"/> 관대한	<input type="checkbox"/> 인내심	<input type="checkbox"/> 공정한
<input type="checkbox"/> 사교적	<input type="checkbox"/> 지지적인	<input type="checkbox"/> 온화한	<input type="checkbox"/> 현명한
<input type="checkbox"/> 정의로운	<input type="checkbox"/> 이해하는	<input type="checkbox"/> 희생적	<input type="checkbox"/> 분석적
<input type="checkbox"/> 용감한	<input type="checkbox"/> 배려하는	<input type="checkbox"/> 믿음직한	<input type="checkbox"/> 독립적
<input type="checkbox"/> 즐거운	<input type="checkbox"/> 평화로운	<input type="checkbox"/> 착한	<input type="checkbox"/> 근면
<input type="checkbox"/> 직설적	<input type="checkbox"/> 수용적	<input type="checkbox"/> 낙관적	<input type="checkbox"/> 목표지향
<input type="checkbox"/> 활동적	<input type="checkbox"/> 겸손한	<input type="checkbox"/> 신중한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input type="checkbox"/> 판단적	<input type="checkbox"/> 우유부단	<input type="checkbox"/> 소극적인	<input type="checkbox"/> 비판적
<input type="checkbox"/> 지시적	<input type="checkbox"/> 피상적	<input type="checkbox"/> 갈등회피	<input type="checkbox"/> 냉정한
<input type="checkbox"/> 참을성 없는	<input type="checkbox"/> 소심한	<input type="checkbox"/> 두려움	<input type="checkbox"/> 인색한
<input type="checkbox"/> 공격적	<input type="checkbox"/> 방어적	<input type="checkbox"/> 불안	<input type="checkbox"/> 따지는
<input type="checkbox"/> 대립적	<input type="checkbox"/> 거절못하는	<input type="checkbox"/> 피해의식	<input type="checkbox"/> 완벽주의
<input type="checkbox"/> 말이 많은	<input type="checkbox"/> 비주장적	<input type="checkbox"/> 눈치 보는	<input type="checkbox"/> 권위적
<input type="checkbox"/> 자기애	<input type="checkbox"/> 의존적	<input type="checkbox"/> 방어적 침묵	<input type="checkbox"/> 의심
<input type="checkbox"/> 거만한	<input type="checkbox"/> 아첨하는	<input type="checkbox"/> 히스테리	<input type="checkbox"/> 격리된
합계 :	합계 :	합계 :	합계 :

STEP2

각각의 유형별 합계를
내보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의 대화 유형에 가깝다.

각자의 유형에 맞는
개발 포인트를 참고해
소통의 데시벨을 높여보자!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주장형	동조형	회피형	이성형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맞아, 맞아!”	“내가 참고 말지”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자기표현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장점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내 이야기를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끝까지 듣는 훈련을 해보자	공감을 잘해주고, 상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다.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궁금한 건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궁금한 건 꼭 질문하자. 내 이야기를 하는 훈련도 빼놓지 말자.	말이 적어 신뢰감을 주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하지만 갈등을 회피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기 십상. 무조건 참고 수용하는 건 소통의 단절이다. ‘관찰- 느낌-욕구-부탁’ 순으로 내 뜻을 전하고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일관성이 있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 신뢰감을 주는 유형이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 떨어져 사람들과 친밀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상대의 말속의 논리성보다 감정과 욕구를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생각’보다는 ‘감정’을 전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몰입
2018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툴스토이

몰입을 위한 Message 테라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나요?

툴스토이가 강조한 ‘현재’에 대한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오늘의 일에, 함께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ON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본업에서 채워지지 않는 자아실현을 위한 직장인들의 도전이 늘고 있다. 특히 회사 업무에서 발산되지 못한 재능과 감각을 발휘해 '퇴근 후 유튜버'로 활동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유튜버의 경우 일정 수준의 구독자와 시청 시간이 누적되면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수익이 생긴다는 것은 일종의 '겸업'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없을까? 우리 회사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한 사항들을 체크해본다.



회사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내 '겸직' 관련 금지사항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 제33조 [준수사항] 제5호는 "회사의 승인 없이 사외 업무에 종사하거나 타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업무'라 하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직무'라 하면 그 지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의 사무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위 취업규칙 조항은 회사의 승인 없이 사외에서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를 계속 반복하여 행하거나, 다른 사무를 담당하는 다른 지위를 함께 맡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대리'가 회사의 승인 없이 퇴근 후 유튜버로 활동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당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일까? 유튜버가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구독자 1,000명 이상, 지난 12개월간 공개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김대리 수준이라면 '유튜버'라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동영상 업로드라는 사무를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취업규칙 위반이 되려면 회사의 승인이 없는 데다가 성실의무 위반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이다.

Q&A TIME!
 변호사님, 그럼 이 경우는요?

- Q **공직자가 아닌 사기업 종사자인데도 제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A [법무팀] 퇴근 후 보내는 개인 시간이 근로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성실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퇴근 후 개인 시간이 사생활 영역을 넘어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의 관여가 가능합니다.
- Q **취미로 운영하는 블로그나 유튜버에서 소액의 수익(애드센스)이 발행한다면 겸직이라 할 수 있나요?**
- A [법무팀] 수익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당사 취업규칙상 겸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정도라면 '블로거'나 '유튜버'의 지위에서 업로드 활동을 계속 반복하여 행한다고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외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Q **자기계발을 위해 업무 분야와 전혀 다른 분야를 공부 해왔습니다. 일시적인 강연/원고 작성 요청이 들어왔는데 해도 되나요?**
- A [법무팀]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승인이 없다면 그것이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서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회사 재직 중 다방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징계를 다툰 사안에서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경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부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구합 7465 판결).
- Q **유튜브에서 회사 소속을 밝히고 활동해도 괜찮을까요? (업무 관련 분야는 아닙니다. 게임, 먹방, 육아... 등)**
- A [법무팀] 이 질문의 취지는 회사 소속을 밝히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회사 소속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자체만으로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러한 활동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 Q **업무에서 배운 노하우를 유튜브 또는 소수를 위한 유료 강좌에서 강연해도 될까요?**
- A [법무팀] 이 질문의 취지는 겸직이 허용되는지 여부라기 보다는 회사의 노하우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회사의 노하우가 영업비밀이라거나 영업비밀까지는 아니라 하여도 회사의 무형적 재산이라 할 정도라면 이를 이용한 유료 강연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회사의 노하우가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회사의 징계조치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Q **이 밖에 직원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 A [법무팀] 결국 결론은 본업은 성신양회 직원이어야 하고 부업은 부업으로 그쳐야지 부업이 본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생활을 보장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직원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이 선순환의 시너지를 내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가 시간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뒷줄 좌측부터)
본사 재무팀 김민성,
본사 경영기획팀 정윤환
(앞줄 좌측부터)
본사 수주영업팀 이슬잎,
구리공장 품질관리팀 정준영,
구리공장 관리팀 이진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출이 제한되면서 실내에서 즐기는 DIY 체험이 인기다. 특히 만들면서 힐링도 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성신레미콘 구리공장 사내인재양성 TF팀 사우들도 바쁜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힐링하기 위해 은은한 빛으로 마음까지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에 도전했다.

반짝이는 하루, 빛나는 활약을 응원해요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사내인재양성 TF팀의 힐링 타임

제법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살갓을 스친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감성 인테리어로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부서는 모두 다르지만 '사내인재양성 TF팀'을 꾸려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5명의 사우들이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체험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사내인재양성 TF팀은 지난 5월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사내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소통 창구 역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구체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팀입니다."

경영기획팀 정윤환 사우가 대표로 사내인재양성 TF팀을 소개했다. 각 부서의 의견을 원활하게 모으기 위하여 팀에서 대리급 이하 직원들을 한 명씩 선발하여 구성되었다는 사내인재양성 TF팀. 단합과 화합을 위해 오늘 체험을 신청하게 되었다.

어떤 것을 만드느냐 보다 함께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체험을 신청했다는 사우들은 아름답고 실용도 높은 '아크릴 무드등'을 만든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잔뜩 품고 회의실로 모였다. 특히 미리 준비된 샘플용 무드등에 전선을 연결해 불을 밝히자 각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예술가들을 불러낼 기세다.

"완성품이 너무 예뻐서 기대가 됩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열심히 해서 멋지게 완성하겠습니다." 본사 재무팀 김민성 사우의 포부다.

오늘 체험을 이끌어줄 호근공방 강래영 강사는 스스로의 미술 실력을 의심하며 걱정하는 사우들에게 '특별히 그림 솜씨가 출중하지 않아도 선만 그을 줄 알면 예쁜 무드등을 완성할 수 있다'며 격려했다.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시작하기 전, 각자 원하는 도안을 선택했다. 곡선이 들어간 도안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점과 선으로 완성할 수 있는 도안이 좋다고 한다. 사우들은 오랜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샘플 중 각자 마음에 드는 도안을 선택했다. 고양이, 돌고래, 북극곰, 에펠탑 등 귀엽고 멋진 것들로 사우들의 눈이 벌써 반짝인다.



mood light



원하는 그림으로 만드는 나만의 커스텀 무드등

아크릴 무드등은, 투명한 아크릴 판에 철틀로 그림이나 글씨를 새겨 빛을 밝히는 방식이다. 사우들은 아크릴판에 선택한 도안을 붙이고 철틀로 그림을 따라 그림 준비를 한다. 실수를 하면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에 작은 아크릴 판에 선과 곡선을 그어가며 먼저 연습을 해본다. 연습이 끝나자 사우들은 선을 여러 번 긁지 않고 딱 한 번만 그어야 깔끔하게 완성된다는 강사의 조언을 머릿속에 새기고 도안 그리기에 돌입했다. DIY 작품인 만큼 모두 선택한 도안에 본인이 생각한 그림이나 글씨를 추가해 자기만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담장에 올라 밤하늘을 바라보는 두 마리의 고양이 도안을 선택한 정준영 사우는 하늘에 자녀 둘의 별자리를 추가하고, 두 마리의 고양이에는 각각 아내와 본인의 이니셜을 새겨 가족을 위한 무드등을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가족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만들었다고 하면 믿어줄까요? 가족들을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정윤환 사우와 이슬잎 사우도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 아직 신혼인 정윤환 사우의 돌고래 도안 밑에 아내와 본인의 이니셜을 하트와 함께 새겼고, 이슬잎 사우는 이제 18개월이 된 어린 아들에게 해주고픈 말을 정성스럽게 각인했다.

한편, 아직 미혼인 사람들은 자기애를 가득 담은 작품을 만들었다. 에펠탑 도안을 선택한 김민성 사우의 자신의 이니셜을 작품 밑에 새겨 기념했고, 이진기 사우도 본인의 별자리인 처녀자리 도안에 자신의 좌우명, 'Carpe Diem'을 새겼다.

“실내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무드등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이걸 제가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작품이라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조금 어설피기는 하지만 이니셜도 새길 수 있고 원하는 도안으로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진기 사우의 스스로 만든 작품에 애착을 보이며 꼼꼼하게 작업을 이어갔다. 나머지 사우들도 모두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의미 있는 작품을 정성스럽게 완성해 나갔다.



“집 안 어디에 뒀도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팀원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소통 창구가 되어 회사가 더욱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사를 환하게 밝히는 빛과 같은 팀이 되기를

사우들은 작품을 위해 꽤 오랜 시간 집중하고 몰입해 도안을 그렸다. 철틀로 움직이는 소리, 아크릴 가루를 털어내는 소리만 계속되는 가운데 고요한 평화로움이 감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팔이 아픈지 작업을 하다 말고 여기 저기서 자주 손을 털고 팔을 주무르기도 하고 옆 사람과 담소도 나눠본다.

이슬잎 사우의 완벽하고 꼼꼼한 성격 때문에 도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 하다 보니 남들보다 배는 힘이 들어갔다. 도안에서 조금 벗어나도 상관없다는 강사의 조언에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선을 따라가려는 이슬잎 사우의 노력은 계속됐다.

“힘이 들긴 하지만 점점 완성되어 가는 무드등을 보니 무척 뿌듯해요. 아이가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힘이 납니다.”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고 사우들의 작품도 서서히 완성되어갔다. 철틀로 새기고 아크릴 가루를 후후 불어 날리고 불빛에 비춰보기를 수백 번, 드디어 작품이 하나 둘 완성됐다. 사우들은 뿌듯한 마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서로의 작품을 품평하며 소감을 나눴다.

“완성된 작품을 현관에 놓으면 집에 들어갈 때 무드등이 환하게 비춰줘서 적막하지 않을 것 같고, 침실에 놓으면 은은한 조명 덕분에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집 안 어디에 뒀도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은 들었지만 오랜만에 업무에서 벗어나 팀원들과 좋은 시간 보냈어요. 즐거웠습니다.” 사우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체험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완성한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다 같이 점등식을 가졌다. 하나, 둘, 셋! 두근두근 기대감 가득한 마음으로 드디어 불을 환하게 밝힌다. 사우들의 개성 있는 작품들이 반짝반짝 빛났다.

사내인재양성 TF팀은 올해 5월 조직되고 팀원들과 함께 한 달 정도 교육을 다녀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코로나19도 있고 각자 소속된 부서의 일도 많아서 단합할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업무 외의 활동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각자만의 작품을 통해 서로가 품은 작은 소망들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직접 만든 아크릴 무드등처럼 회사를 환하게 밝히는 멋진 활약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



Falling in Books

교양 가득 감성 충만! 성신인의 독서 라이프 대공개

책 읽기 좋은 가을 날씨! 만끽하고 있는가? 가을의 감성을 더욱 짙게 물들여줄 독서 라이프 인증샷을 모아봤다. 책이 함께하는 동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관심사도 살짝 엿보자.



독서 천재의 탄생!

우리 아이 책 한 권 보는 시간 30 초 컷. 여러 장을 한꺼번에 넘겨 보는 스킬은 기본 탑재. 천재의 탄생 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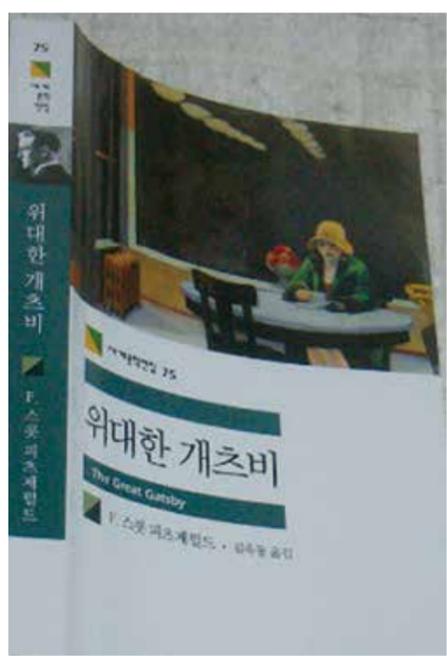
영업본부 특수영업팀 정흥주 사우



고독과 불안이 커진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

〈불편한 편의점〉 읽어보셨나요? 스토리가 한 사람의 시선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책인데요, 생동감 있는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잔잔한 힐링을 느끼고 싶을 때 추천 드립니다! 2시간만 투자하신다면 호다닥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관리지원본부 인사팀 강하리 사우



'클래식'엔 이유가 있죠~!

이틀 만에 위대한 개츠비 완독했습니다! 소설 속의 시대 배경(1920년대 미국)을 반영하여 인물들을 이해해보거나, 개츠비의 사랑에 집중해서 읽어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추천해요.

성신레미콘 수주영업팀 김진아 사우

아들의 독서 타임

무슨 책이든 많이 읽는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앞으로도 다독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자~! 아빠도 함께 읽을게!

경영전략실 전략기획팀 주범진 사우





가을엔 책♥피크닉이죠!

오랜만에 한강공원 나들이에 책을 가져갔어요. 약속 시간이 조금 남은 카페에서 잠깐 책을 보기도 했는데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공돌이들의 인문학 입문서로 강추합니다!

경영전략실 전략기획팀 윤성운 사우



독서 부자(父子)의 아침

출근 전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책을 읽는 아들입니다. 잠을 더 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옆에 있는 <술 잡학사전>은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아들이 읽는 거아님!

단양공장 관리팀 유근수 사우

한적한 국내 여행지를 찾으시나요?

언택트 여행족을 위한 도서 <대한민국 오지여행>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을 못 가니 한적하고 조용한 국내 오지 여행에 관심이 생겼어요! 베테랑 여행 전문가들이 출간한 책으로 특별한 경험담도 많고 여유와 느긋함을 찾을 수 있는 여행지가 많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코로나19가 열린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싶어요!!

관리지원본부 정보기획팀 황지우 사우



따라라라라~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20가지 인테리어 법칙>을 읽고 있어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공간의 변화를 주고 싶다면 가볍게 읽고 실행해보기 좋은 책입니다^^

관리지원본부 총무팀 장석정 사우



현실을 잠시 잊게 하는 픽션의 힘

두 달 전쯤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 제목에 이끌려 앉은 자리에서 완독한 책으로, 올가을 추천하고 싶은 책 <기묘한 러브레터>입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 사라졌던 전 여친과 우연히 연락이 닿은 남자! 둘의 편지 속 기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마지막 식스센스급 반전까지 책장이 매우 빠르게 넘겨지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잠시 잠깐 현실에서의 도피가 필요할 때 빠져서 읽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관리지원본부 정보기획팀 김혜진 사우

이 책을 영입해요

이야기 전개가 진진하여 배고픔도 잊게 하는 책도 있고 더러는 재기넘치는 문체만으로도 즐거운 글이 있지요. 주제와 아이디어가 매력적인 책은 더 특별한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는 동안에는 머릿속에 생생한 스크린이 펼쳐지고, 읽은 후에는 마치 비밀의 화원을 구경하고 온 듯 뿌듯해지기 때문입니다.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딱 그런 책입니다. 시간이 불변의 조건이 아니라 물리적 현상임을 이해시킨 다음 독자들이 스스로 이 우주의 구조를 상상해보도록 자극합니다. 역사적 에피소드, 철학 이론, 개인적 경험과 예술까지 끌어와 적극적 책 읽기를 돕습니다. 분량도 적고 읽기도 쉽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사우들에게 추천해보아요!

영업본부 영업기획팀 박철규 사우



COMPLIMENT

1일 1칭찬 어때요?

동료, 배우자, 자녀 누구라도 좋다. 오늘 만난 누군가를 칭찬해보자. 대단한 것도 좋고, 사소한 TMI 칭찬도 괜찮다. 쑥스럽고 멧쩍어서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해보자.

당신은

엑셀을 잘 / 언제나 친절 / 유머 감각이 대단

해요!

"척하면 척! 환상의 파트너"

필요할 때마다 업무협조 요청을 자주 부탁드려도,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항상 빠르고 친절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업무를 지원해주시는 정보기획팀 신기준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장님 덕분에 곤란한 상황이 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신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신과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FROM. 관리지원본부 총무팀 장석정 사우



"아버지께 모든 걸 배워가요"

아버지. 큰 수술 잘 견디시고 잘 회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관리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가 또 한 수 배웁니다.

FROM. 단양공장 관리팀 유근수 사우

"후배 자랑에 질수 없다!!"

구리공장 허성원 사원을 칭찬합니다. 입사한 지 이제 한 달여 남짓, 처음이라 모든 게 어색하고 생소한 일들 투성이지만, 매사에 성실히 임하며, 육체적이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묵묵히 해내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항상 웃는 얼굴로 팀에 활기를 주네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세요!

FROM. 성신레미콘 구리공장 품질관리팀 이진호 사우



"나를 자극하는 멋진 사우들"

종로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것 같은 김연재, 황지희 사원을 칭찬합니다. 입사한 이래로 외국어부터 업무 자격증까지 쉬지 않고 따는 둘을 볼 때마다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열심히 살도록 늘 자극이 되어주는 멋진 제 동기들을 칭찬합니다!

FROM. 관리지원본부 인사팀 이장현 사우

"당신과 동료라니! 영광입니다"

얼마 전 복귀한 노치훈 대리! 코로나 속 방글라데시에서 고생이 참 많았는데 건강하게 복귀해줘서 너무 고마워! 똑똑한 일 처리, 헌신적인 태도, 밝게 웃는 긍정적인 에너지까지! 함께 할 수 있어 우리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FROM. 해외사업본부 해외사업2팀 박준석 사우

"살아있는 맛집 AI! 인사동을 접수하다"

티타임 맛집 내비게이션 양효식 차장님! 커피, 디저트 맛집을 꿰차고 있는 '인사동 인싸'이십니다. 앞으로도 정진해주세요~!

FROM. 관리지원본부 정보기획팀 황지우 사우



"당신을 응원해요!"

늘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왕영업소 김정주 사우를 칭찬합니다. 육아로 힘들텐데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FROM. 영업본부 중앙지사 의왕영업소 유태욱 사우

"일취월장 중인 나의 후배를 칭찬해요"

분명 신입인데, '신입 같지 않은' 김영환 사원과 일한 1년이 참으로 귀하고 유익하였다.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너는 이미 훌륭한 직장인으로 성장해가고 있음을 믿는다. 지난 1년간 나 같은 별난 상사를 만나 모진 훈련(?) 견디느라 고생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너의 직장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업무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길!

FROM. 경영전략실 경영지원팀 김설규 사우



"당신이 이 구역 유퍼왕"

재치 있는 입담이 매력적인
웃음 전파자 조민혜 변호사님~~!
위트 넘치는 입담으로 법무팀
사무실을 훈훈한 분위기로 만드는
센스퀸!! 조민혜 변호사님을
칭찬합니다:)

FROM. 관리지원본부 법무팀 이소현 사우



"동네 사람들~! 우리 팀 후배가 대단해요"

용인공장 품질관리팀 박현수 대리의 남다른 '센스'를
칭찬합니다. 한 가지를 알려주면 몇 가지를
해놓는 현수 대리! 현수라고 쓰고 브라더라 읽는다~!

FROM. 성신레미콘 용인공장 품질관리팀 이명우 사우



"학구열 불태우는 중! 엄마 멋져요"

작년부터 대학생이 되신 우리 엄마! 학생들도
어려워한다는 비대면 수업도 능숙하게 하시고, 직장
병행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성적 장학금까지 받으셔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부모님의 주경야독 응원합니다.

FROM. 관리지원본부 인사팀 강하리 사우

"여러분, 우리 둘째 사랑 좀 할게요!"

위로는 누나 아래로는 막둥이 동생,
종간에서 항상 아빠 엄마 잘 도와주는
우리 둘째 영우!! 아빠 생일 선물이라고
아껴뒀던 3만 원을 주며... 또 모으면
된다고 용돈 주는 착한 아들 항상
고맙고 사랑해♥

FROM. 단양공장 생산2팀
손경수 사우

이름다운
부모님



(왼쪽부터) 본사 정보기획팀 신기준 사우, 본사 총무팀 정석정 사우

마음을 전하면 선물이 온다?!



<GIFT FOR U>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관리지원본부 총무팀 정석정 사우에게
'음료 선물'을 지원해드렸습니다.

쉬임

그러니 오늘, 그리고 모든 서늘한 날들에
우리 쾌활하게 살아가자.

비록 해가 동쪽으로 들고,
연못들이 검고 차갑게 변하고,
한 해의 즐거움들이 운명을 다한다 하여도.

'아름이 짙어져 가는 날들에 쓴 시, 메리 올리버

쉬임 위한 Message 테라피

깊어지고, 서늘해지는 가을날.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을 멈춰 두고 마음에 위로를 주는 시 한 편으로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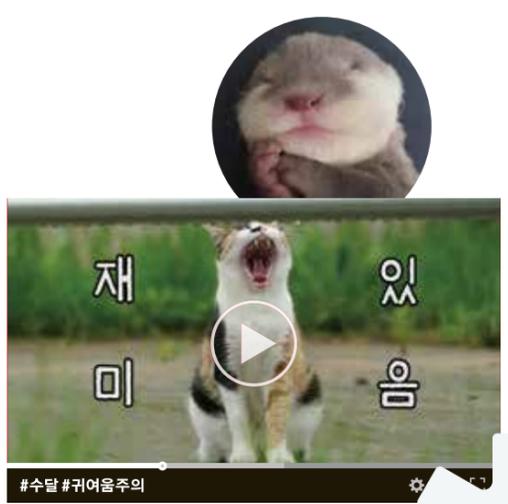
즐거보는 유튜브 채널이 당신의 취향을 말해준다.
ASMR, 다이어트, 여행, 재테크 등 사우들이 즐겨보는 채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보고,
나의 구독 리스트도 채워보는 건 어떨까?

'최애' 유튜브 채널로 알아보는 취향 대결!



세상 건전한 종이접기의 세계로 오세요
성신레미콘 구리공장 품질관리팀 이건호 사우

- Q1. '따니네 만들기'라는 종이접기/크래프트 채널이에요. 사실은 딸이 좋아하는 채널이라 어쩔 수 없이(?) 보는 채널인데,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를 아빠와 함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보고 있어요.
- Q2. 프로그램 특성상 레전드 영상, 에피소드는 없지만, 어려운 종이접기나 난이도 높은 만들기를 성공하는 성취감에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 Q3. 딸을 가진 모든 아빠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종이접기로 '엘사가방', '알약편지' 만들기... 최고의 아빠가 될 수 있어요!



동물사랑꾼들 다 모여
성신레미콘 본사 수주영업팀 김진아 사우

- Q1. 'haha ha'와 '이웃집수달'입니다. haha ha님의 채널은 양어장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채널입니다. 이웃집수달은 최근에 구독하게 되었는데 수달이 너무나 귀엽습니다. 수달은 개인이 사육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나마 귀여움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 Q2. haha ha 채널은 처음 고양이 가족들과 인연이 닿은 게 꽤 오래전이라 옛날 영상부터 역사 공부하듯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웃집 수달 채널 영상은 '아기수달이 잠자는 엄마아빠 수달을 건드리면 생기는 일' 편을 추천드립니다. 육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너무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 Q3. 동물 영상이나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구독하세요. 고양이야 원래 귀여운 걸 잘 알고 있었지만 haha ha님 채널은 인위적인 장면을 만들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웃집 수달은 정말 '수달이 이렇게 귀여웠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귀여운 거 최고!

- Q1.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은 무엇인가요? 구독하는 이유는요?
- Q2. 해당 채널에서 가장 재밌게 본 영상이나 레전드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 Q3.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SUBSCRIBE



여행에 갈증이 난다면 추천해요
성신레미콘 본사 재무팀 김민성 사우

- Q1. 제 최애 채널은 '빠니보틀'입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는데, 우연히 보았다가 힐링이 되는 느낌에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 Q2. '인도 기차 1등칸 vs 중간칸 vs 꼴등칸 타보기', '텍사스 식 멧돼지 사냥' 등의 에피소드를 추천해요. 어디서도 해볼 수 없는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해볼 수 있습니다.
- Q3. 자극적이지 않고 영상미도 괜찮아서 여행에 갈증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가보기 힘든 지역이 궁금하신 분들, 외국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큰 분들께도 추천해요.



중고차 구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경영전략실 전략기획팀 윤성운 사우

- Q1. 요즘 즐겨보는 채널은 '닥신TV'입니다. 신재욱이라는 현직 의사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중고차 고르기'와 '살면서 느낀 점'에 대한 시리즈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관련 유튜브 채널은 여러 개 봤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공감되는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 Q2. 'gv70 견적 4,988만원' 에피소드가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해당 차량의 옵션과 견적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영상으로, 무려 65만 뷰를 달성했네요. 일반적인 채널과 달리 실물을 보지 않고 랜선으로 차를 리뷰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자칭 '사회적 거리두기 방구석 리뷰어'). 실용적인 정보 덕분에 중고차 구입 후에도 삶에 대한 '닥신'의 생각을 들어보면 공감할 점이 참 많아서 꾸준히 보고 있어요!
- Q3.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꼭 보세요! 세상 '차알못'인 저도 큰 도움을 받았답니다.

- Q1.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은 무엇인가요? 구독하는 이유는요?
- Q2. 해당 채널에서 가장 재밌게 본 영상이나 레전드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 Q3.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SUBSCRIBE 



당신도 **잡학다식**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단양공장 사업개발본부 제품개발팀 신형호 사우

- Q1. '슈카월드'입니다. 시사 상식 및 주시 등 여러 흥미로운 주제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모르던 상식들을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 Q2. 최근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다룬 '제국의 무덤 앞에 선 중국' 편이었어요. 거대한 세계가 어떤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지 어렵듯 배울 수 있었어요.
- Q3. 유튜브를 즐겨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유튜브 시는 나의 관심 분야 내에서만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슈카월드의 영상을 통해 관심사 밖의 이야기들도 접해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귀농귀촌 **로망**을 엿볼 수 있어요

감사팀 황지희 사우

- Q1. '오느른onulun'이라는 MBC PD의 시골살이 채널을 추천합니다. 시골의 4,500만 원짜리 폐가를 구입한 후의 삶을 그린 채널이에요. 귀촌/세컨하우스를 꿈꾸는 사람들의 대리경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시골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들이 궁금해서 구독했는데, 후에는 시골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계속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 Q2. '아빠와 버킷리스트'편(어른이 되고 난 후, 아빠와 자꾸만 서먹해지는 세상의 모든 딸에게)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느른 PD님이 아빠와 함께 투닥투닥하며 보내는 모습이 찡하고 감동적이에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고민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에피소드예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특별한 여행기** 한가득

해외사업2팀 이동규 사우

- Q1. 요즘 가장 즐겨보는 채널은 '괏튜브'입니다. 세계 여행을 하는 유튜버입니다. 한국에서 접할 수 없는 해외 문화와 새로운 장소를 소개해줘서 재밌습니다. 최근에 정말 인기가 많아져서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 Q2. 가장 재밌게 본 영상은 주인공이 카자흐스탄을 여행하는 영상 시리즈예요. 먹방도 재미있고,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호수라는 '발하시 호수'를 소개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Q3. 해외여행을 좋아하시거나, 영상으로나마 해외를 접하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권의 여행지는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아 정말 이색적입니다.



쉽고 맛있는 **홈쿡**,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경영전략실 전략기획팀 전미진 사우

- Q1. 가장 즐겨보는 채널은 '하루한끼'입니다. 유튜버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약 4~6분가량의 동영상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430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한 인기 유튜브 채널입니다. 모든 가정집에 있을법한 간단한 재료들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줍니다. 영상을 하나만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게 됩니다.
- Q2. 가장 재밌게 본 영상은 조회 수 9,846만 회를 자랑하는 인기 영상인 '계란볶음밥 만들기 편입니다. 기본요리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영상이에요!
- Q3. 코로나19로 항상 배달음식 주문해 드시느라 지치신 분들, 요리하기엔 귀찮으신 분들! 누워서 영상 딱 2개만 보시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도전해보세요~!!!

20여 년 전 인터넷의 시대가 열리고, 10여 년 전 모바일 환경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다음'으로 접쳐지는 게 바로 '메타버스'다. 가상공간 속에서 나를 투영한 아바타를 만들어 누구든지 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미 요즘 1020 세대가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때 싸이월드가 있었다면,

요즘 애들은 메타버스에서 논대



재등장을 예고한 '싸이월드', 메타버스와 무슨 관계일까?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세계이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1992년 SF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시작되었다. 이 소설은 현실에서 한 행동이 사이버 공간 속 아바타의 행동과 일치하는 가상공간을 메타버스라고 표현했다.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쇼핑, 산책, 공연 관람 처럼 현실 세계에서 했던 활동들을 사이버 세계에서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사실 메타버스는 2000년대에 유행했던 '싸이월드'의 미니룸과도 유사한 개념이다. 미니룸에서 미니미가 일촌 맺기를 했던 것처럼 메타버스는 진일보한 형태로 가상공간에서 아바타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2020년 서비스를 종료한 싸이월드는 메타버스를 구현한 3D 미니룸으로 올해 말 재등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게시물에 1대 1 비율의 사진으로 나열하고 팔로잉과 팔로잉 수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쇼핑, 선물, 게임 등의 서비스도 추가했다. MZ 세대에겐 친숙한 메타버스 시장은 이처럼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일상도 이를 부추겼다.

미국 초딩 70%가 한다는 사이버 놀이터 '로블록스'

'로블록스는 현재 미국의 어린이가 70% 이상이 이용할 만큼 널리 대중화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이용자들은 블록처럼 생긴 아바타로 게임을 즐긴다. 일반 게임과 다르게 이용자가 게임을 개발할 수도 있는데, 간단한 코딩으로 블록 형태의 게임과 아이템을 만든다. 이용자는 게임 내 화폐인 로벅스로 게임에 참여하거나 게임 개발 수익을 낼 수 있다. 번 수익은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옷, 표정, 제스처 등의 아이템 구매에 활용할 수 있고, 실제 돈으로 환전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10대 이용자가 급증했다.



제2의 나를 표현하는 공간 '제페토'

미국의 로블록스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제페토가 있다. 게임보다는 아바타를 활용한 가상 세계에서의 소통에 중점을 뒀다. 얼굴 인식 앱 '스노우에서 출발한 덕에 셀카를 찍은 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닮은 아바타를 생성해준다. 다양한 아이템으로 아바타를 꾸민 후 공원, 교실, 회사 등의 장소들을 다니며 음성 대화모드를 사용해 아바타끼리 대화도 가능하다. 기업의 마케팅 참여도 활발하다. 구찌, 샤넬 등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 해 아바타가 명품 브랜드 제품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제페토 내에 열기도 한다. 이 같은 마케팅 활동은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에게 친구 사귀기, 콘서트 가기, 회의하기 등의 사회활동이 된다.

모임에 특화된 메타버스 '이프랜드'

'이프랜드'는 SK텔레콤이 지난 7월에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모임'에 특화된 활용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게임 위주의 로블록스나 아바타 꾸미기에 집중한 제페토와는 다르다. 마치 카카오톡 음성 SNS '음(mm)'이나 '클럽하우스'를 아바타 형식으로 시각화해 재현한 느낌이다. 특정 주제에 따라 고민 상담 방, 역할극을 하는 방, ASMR을 들려주는 방 등이 있는데, 음성 모드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분위기다. 소규모 친밀 모임이나 대규모 행사 등 점차 메타버스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짚와이어 #모노레일
#체험여행

경영전략실 전략기획팀 김영한 사우



물길을 따라 비경을 즐길 수 있는 가을의 단양은 온통 축제 분위기다. 가을빛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주요 자연 관광지는 물론, 스카이워크, 패러글라이딩 등 익스트림까지 즐길 수 있다. 가족, 친구 등 소규모 일행이 가볍게 떠나볼 수 있는 장소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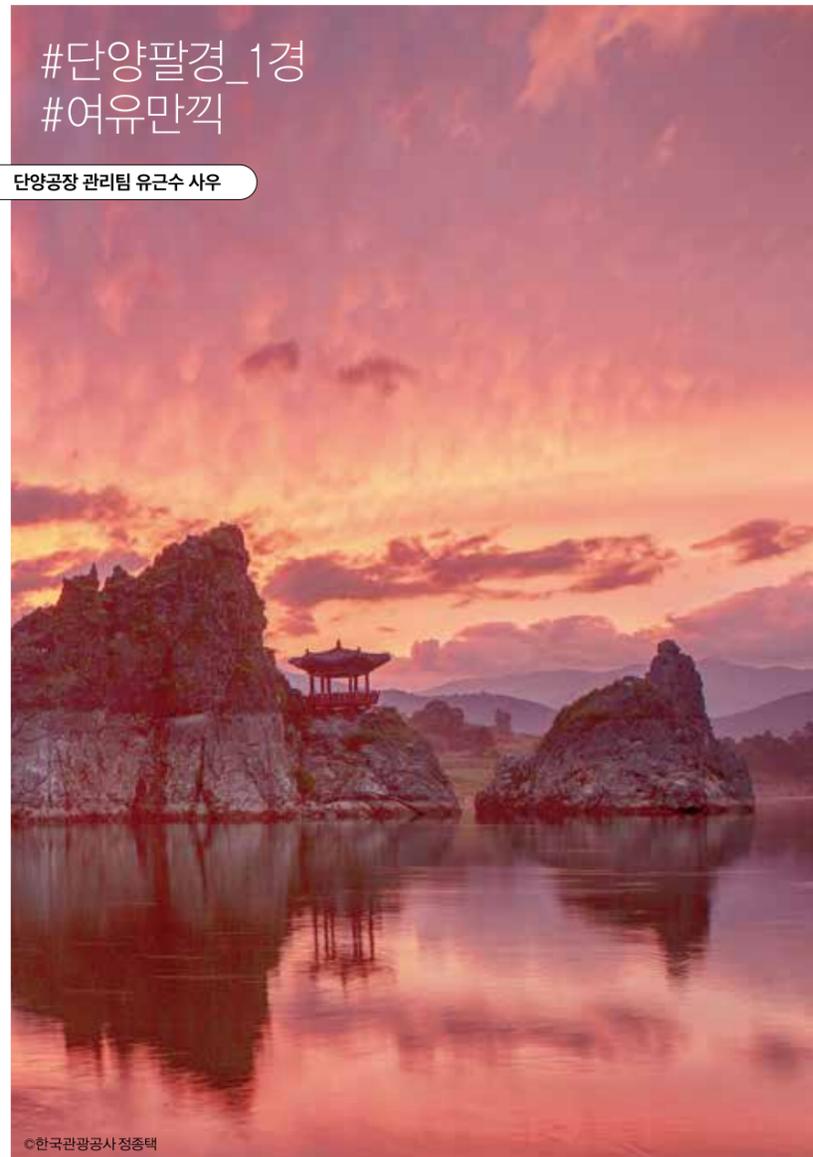
가을빛을 가득 머금은 내륙 여행

@단양



#단양팔경_1경
#여유만끽

단양공정 관리팀 유근수 사우



©한국관광공사 정종택

단양하면 단양팔경이죠!

📍 석문 & 도담마을

도담삼봉 강 길 따라 올라가면 단양팔경 중 1경인 '석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엔 유람선을 타고 구경을 했었지만 지금은 도담마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숲으로 우거진 시원한 길을 따라 도담마을로 들어서면 아기자기하게 공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도담삼봉의 뒤쪽 모습도 볼 수 있고 석문도 담을 수 있어 좋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 장소에 깃든 '여유'입니다. 강 길 따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보며 물멍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혹시 도담삼봉 주차장 가시면 파란색 커피자판기에 있는 밀크커피를 추천합니다. 이 계절에 어울리는 세상 달달한 커피입니다.

'만천하'가 다 내 것이 된 기분 느껴보세요!

📍 만천하 스카이워크

단양의 아름다운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랜드마크,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추천합니다! 통유리 전망대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남한강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형의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걸어 올라가며 사방으로 단양의 절경을 느껴보세요. 가을에는 단풍과 맑은 하늘이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짚와이어, 모노레일, 알파인코스터 등 체험거리들이 다양하고, 포토존도 잘 조성되어 있어 가족 여행 코스로 딱입니다.

5억 년의 세월이 담겨있는 자연탕구 어때요?

📍 고수동굴

단양 가을 만한 곳을 검색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곳! 고수동굴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관광객이 꽤 줄었지만, 요즘 같은 날씨 좋은 가을에는 인기만점 여행지이죠. 1.3km의 거대한 규모에 마리아상, 사자바위, 인어바위 등 독특한 형상의 지형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체험관도 둘러보시고요! 동굴이 꽤 깊숙하고 계단이 많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편한 운동화를 필수 장착하셔야 한다는 게 팁입니다.

추천 맛집

소백산 덕덕동동주 매운칼국수
동굴 입구 주차장 근처에 있는 맛집도 놓치지 마세요. 매운 국수로 유명한 가게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단양의 별미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석회암동굴

경영전략실 생산기술팀 한상교 사우



#뷰맛집

단양공장 생산2팀 손경수 사우

석양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 도깨비 카페

단양 가곡면 두산길에 있는 도깨비 카페! 낮에도 예쁘지만, 석양이 질 때 가시면 좋아요. 산 정상에 있어서 바람이 정말 시원합니다. 추워지기 전, 딱 이 계절에 좋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곳은 우리 회사 광산으로, 정말로 '뷰 맛집'이 따로 없죠? 야외 테이블에서 탁 트인 뷰를 감상하며 차 한잔 마시면 무엇보다 부럽지 않습니다. 석양 질 때 가시면 빵을 덤으로 더 줄 때도 있습니다! (꿀팁 메모하세요!)

관리지원본부 신용관리팀 양기람 사우



#소백산
#가을캠핑

추천 맛집

바위집 염소가든

다리안 관광지 가는 길에 위치한 이 집 닭백숙과 염소 전골 맛집입니다. 초입에 다른 백숙집도 많지만, 이곳은 계곡을 바로 옆에 끼고 있어 자연의 풍미를 즐기며 먹기 좋은 식당입니다.

'등산', '캠핑' 아웃도어 마니아라면 여기가 딱!

📍 다리안 관광지

소백산 국립공원의 입구 격인 다리안 관광지는 계절 불문 인기 관광지입니다. 소백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비로봉을 가장 쉬운 코스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 등산객이 많은 편이죠. 계곡을 끼고 있어 여름에는 피서객들이 붐비고 요즘같이 시원할 때에는 다리안 캠핑장을 이용하기에 제격입니다. 추워지기 직전, 나무가 울긋불긋물들 때 데크 캠핑장에서 야외 캠핑도 추천해요! 맑은 가을밤엔 별도 많이 보이니 멋진 추억을 가득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적정속도로 자전거 투어는 어떠세요?

📍 단양의 명소를 모두 찍는 자전거 루트

걷기에는 너무 길고 차로는 느낄 수 없는 남한강의 경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전거 투어 코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단양공장 후문에서 보이는 매포천 생태공원을 따라 도담삼봉, 단양생태체육공원, 성신연립 등을 지나다 보면 장미터널도 보이고 조금 더 가면 단양 남한강 코스모스 꽃길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서 가다 보면 만천하 스카이워크 산책로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나도 다양한 산책로가 구성되어있어 걷는 게 전혀 지루하지 않은 곳이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진은 코스모스길에서 조금 더 가면 나오는 대형 데이지입니다!

단양공장 사업개발본부 제품개발팀 신형호 사우



#남한강
#자전거투어

추천 맛집

빙천막국수

인근 빙천막국수 식당도 꼭 둘러보세요~! 주문 시 탕수육 또는 만두를 필수로 주문해야 합니다!

뽕차

산책과 자전거 라이딩으로 지친 몸을 잠시 쉬어가기 좋은 단양의 대표 카페입니다. 빙천막국수에서 식사를 한 뒤, 이곳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마무리한다면 속속로 복귀하는 발걸음이 다시 가벼워질 거예요!



단풍보려면 제대로 보셔야죠! 소백산으로 가볼까요?

📍 구인사 & 소백산

제가 추천하는 장소는 곱게 물든 소백산 자락 '단양 구인사'입니다. 차를 타고 굽이굽이 오색길을 내려가다 보면 대한불교 천태종 구인사가 나옵니다. 언덕을 따라 약 20개의 전각이 있는데 걸어서 천천히 둘러보시면 약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대조사전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려면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펼쳐져 힘들게 올라온 것이 잊혀지며 감탄이 절로 나오죠. 가을 단풍구경을 즐길 수 있는 유명한 관광지로 한 번쯤은 꼭 가보세요! 방문 팀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려올 땐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니 걸어오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본사 경영기획팀 정윤환 사우



#구인사
#등산

콘크리트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노출 콘크리트는 현대적인 동시에 자연 경관과도 잘 어울린다. 노출 콘크리트의 대가 안도 다다오가 제주 곳곳에 세운 건축물들이 좋은 예다. 섭지코지에 위치한 유민미술관과 글라스하우스는 가을 빛을 머금은 산과 오름, 짙어진 바다색과의 조화가 돋보인다.

콘크리트,

자연을 담아내는 캔버스가 되다



휘닉스제주 섭지코지 유민미술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21

JEJU

× TADAO ANDO



제주를 품은 건축물

일본 오사카 출신의 안도 다다오는 건축물을 통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건축가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인 제주 섭지코지에 원생적 자연의 모습을 형성화한 유민미술관과 글라스하우스는 관람자가 건물 곳곳에서 섭지코지의 물, 바람, 빛,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다.

유민 미술관은 회색의 콘크리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맑은 하늘, 푸른 산과 함께 어우러지는데 어색함이 없다. 하늘에서 내리쬐는 빛으로 건물이 반사되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승화된다. 미술관에 들어서면 전시실 입구가 아닌 현무암으로 만든 구조물로 꾸며진 정원과 연잎으로 메워진 작은 연못이 나온다. 현무암의 짙은 빛이 계절마다 다른 색을 띠우는 꽃들과 어우러지며, 특별한 장식은 없지만 건물의 모습과 구조만으로도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 중앙의 길게 뻗은 비스듬한 내리막길은 양면의 벽을 따라 물을 흐르고 있는데, 지하 공간에 자리 잡은 전시실 쪽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끈다. 전시실은 1894년부터 약 20여년간 유럽 전역에서 일러났던 공예 디자인 운동인 '아르누보'의 유리공예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실내 전시실과 외부 공간 사이에 미세한 틈들이 존재해 미술관 내부에서도 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 빛, 소리를 느낄 수 있다.

외부엔 '뉴 파인더로 불리는 직사각형의 구멍을 가진 돌담의 벽이 존재한다. 이 벽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돌담 사이로 바다 너머의 성산일출봉이 한눈에 들어온다. 돌담과 미술관 건물을 담은 직사각형의 프레임에 담긴 성산일출봉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미술관 위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드넓게 펼쳐진 제주도의 동쪽 바다를 볼 수 있는 2층의 건축물인 글라스하우스를 만나게 된다. 역시 안도 다다오의 작품으로, 지하 구조의 유민 미술관이 '음'의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글라스하우스는 '양'의 건축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건축물이면서도 하나의 모던하고 절제된 현대 조형물을 보는 듯한 느낌도 준다. 땅 위로 솟아오른 듯한 V자형 건축물인 글라스하우스는 동쪽을 향해 열려있다. 전면이 유리로 마감되어 있어 내부에서도 제주도의 바다와 성산일출봉을 볼 수 있다.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어 제주도의 풍광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자연과 건축의 조화

건축의 가치는 효율성과 실용성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시각적인 형태의 미감만 중요한 것도 아니다. 좋은 건축은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건축물에 드리우는 빛, 그늘, 바람에 의해 형태와 방향을 만들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건축물 안팎으로 이어지는 동선과 그 동선 위에서의 시선까지도 설계하는 것이다.

안도 다다오는 "사람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생활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건축물 안의 사람이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건축물에도 생명이 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계절에 가도 좋지만, 가을의 제주를 찾게 된다면 유민 미술관과 글라스하우스를 둘러보는 건 어떨까? 가을 빛을 머금은 산과 오름, 바다와 건축물의 조화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쌀쌀해진 날씨, 영양제는 잘 챙기고 있나요?

추석 선물로 들어온 홍삼, 직구 세일로 산 루테인과 밀크씨슬. 생각날 때마다 먹고 있긴 한데,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 맞나? 먹고 있는 의약품과 함께 먹어도 되는 건가? 궁금증이 생겨난다. 환절기 건강을 위해 챙기는 다양한 영양제, 알고 챙기자.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은 달라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 및 증진 등 실제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기능과 안전성을 공인한 제품이다. 제품 유형을 잘 살펴서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과 혼동하면 안 된다. 비슷한 성분, 가격이라면 아래 건강기능식품(GMP) 마크가 부여된 것을 선택하면 된다.



기저질환으로 약 복용 중이라면 주의하세요

당뇨나 고지혈증 등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반감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약국에서 영양제 구입을 할 때 약사에게 함께 먹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p>YES</p> <p>당뇨 환자가 처방받는 '메트포르민'은 비타민B12 결핍을 유발할 수 있다. 당뇨약을 복용한다면 비타민B12가 포함된 영양제를 함께 챙기면 좋다.</p>	 <p>NO</p> <p>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치료를 받고 혈액응고제제를 처방 받았다면 오메가-3는 피하는 게 좋다.</p>	 <p>NO</p> <p>마그네슘, 철분 보충제는 골다공증약의 흡수를 방해해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가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지만, 필요시 1~2시간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자.</p>
---	--	--

FAMILY NEWS

축하합니다

김용찬 사우	단양공장 기계팀	득녀	2021.7.8
최종한 사우	단양공장 생산2팀	득녀	2021.7.31
김소희 사우	영업본부 동부지사 단양영업소	득녀	2021.8.4
윤성운 사우	경영전략실 전략기획팀	득남	2021.8.17
양지훈 사우	단양공장 관리팀	본인 결혼	2021.9.25
정민아 사우	단양공장 안전팀	본인 결혼	2021.10.2
이강만 사우	본사 총무팀	자녀 결혼	2021.10.3
나문섭님	前단양공장 생산2팀	자녀 결혼	2021.10.9

명복을 빕니다

최은석 사우	단양공장 생산1팀	모친상	2021.7.5
김남강님	前성신레미컨 레미컨사업본부	빙모상	2021.7.6
차호진 사우	단양공장 기계팀	모친상	2021.7.16
오창훈님	前영업본부	빙모상	2021.7.26
이원욱 사우	단양공장 자원팀	모친상	2021.7.27
최태섭 사우	단양공장 전기팀	부친상	2021.7.29
김자광님	前부강공장장	빙부상	2021.8.19
오시백님	前노동조합 위원장	빙모상	2021.8.24
강석호 사우	단양공장 생산1팀	모친상	2021.8.30
이건호 사우	성신레미컨 구리공장 품질관리팀	부친상	2021.9.3
정윤환 사우	성신레미컨 경영기획팀	부친상	2021.9.7
조규선 사우	단양공장 관리팀	모친상	2021.9.8



단양공장 안전팀 정민아 사우



경영전략실 전략기획팀 윤성운 사우



성신양회 아동용 마스크 후원

지난 8월 1일 성신양회는 단양 향토기업들과 함께 아동용 마스크 2만 5,000장을 단양군에 기탁했다. 이번 아동용 후원은 관내 기업체 4곳에서 줄어드는 지역 내 아이들을 위한 사랑실천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군으로 기탁된 아동용 마스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 영유아, 초등학생 등 1,490명에게 1인당 50장씩 지원할 예정이다.



3분기 실적보고회

2021년 3분기 경영실적보고회가 지난 10월 13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김태현 회장 외 2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영업/생산/해외 등 각 부문별 3분기 실적 및 4분기 계획이 발표되었다.

김 회장은 “회사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며,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본부 간 소통 강화 및 능동적인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를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성신양회(주), '제47회 전국품질분임조 발표대회 금상' 수상

지난 8월 23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47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성신양회가 금상을 수상했다.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폐가수분임조(발표 김윤수, 양준석, 이광희)는 '소성 탈질공정 개선으로 미세먼지 배출원단위 저감'이라는 주제로 자발적인 환경개선 혁신활동으로 금상(대통령포상)을 수상했다.

이 경진대회에서 함께 열린 '품질활동 홍보 UCC·사진 공모전'에서도 성신양회(주) 단양공장의 양준석, 이광희, 김윤수 사원은 '현장 문제해결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과 현장의 모습'이라는 공모주제 사진 부문에 참가해 우수상(한국표준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무료한 일상
뒤집기 한판



천마마일리지 포상금 : 1루베(m³)당 약 1,000원!

도전이
필요하다면
가까이서 찾아라!

